

"거대 담론 보다 일상에 더 관심을"

'MZ, 불교를 만나다'

B3면에서 계속

핑크피기: 절오빠에 대해서 극호감을 지니고 있어. 요즘 애들은 등산도 좋아해. 산에 가면 사찰들이 있잖아? 같이 사찰 찾아다니는 재미를 느끼는거지. 불교동아리에서 만난 법우들과 대화해보면 '순수함' 같은 느낌을 받아. 사찰 다니면서 정신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못봤어. 마음이 단단한거지.

Q 학교 다닐 때 학비 부족하지 않아? 불교계에서 장학금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도선키즈: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어. 스님들이 그 모습을 가엽게 여기셨는지 동국대 불교청년 육성 장학금을 주시고 계셔. 수요일에 한 번씩 정각원에서 법회를 하면 한학기에 100만원 가량이 나와.

욕망곰탱이: 불교계에서 장학금이 군데군데 있어. 그런데 많은 불자학생들이 그걸 모르는게 문제야. 조계종 포교원 장학금, 진흥원 장학금, 각 사찰에서 주는 장학금, 대불련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 등등 많은데, 개별로 흩어져 있다보니 결국 본인이 찾아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어. 요즘 MZ들은 취업이 중요하거든. 장학생이 되는게 금전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불교계에서 이 부분을 공략했으면 해.

Q 스펙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봉사도 하고,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해서 기록으로 남기잖아?

욕망곰탱이: 나는 개인적으로 불교계에도 해외봉사나 연수 프로그램이 늘었으면 좋겠어. 기독교는 '선교'라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해외 프로그램이 있거든. 참 부러웠어. 대만이나 인도 등에 학우들이랑 가면서 불심도 높이고 일종의 스펙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핑크피기: 해외봉사 기회가 대학에도 있는데 문제는 성적 순으로 자른다는거야. 공부에 매진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불교동아리 같은 활동은 소원해지는 것 같아. 불교계에서 해외봉사 등의 기회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 불교동아리 활동도 인기끌지 않을까.

욕망곰탱이: 불교계는 해외에도 사찰들이 있잖아? 방학때마다 단기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Q MZ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건 멀까?

동국대비와이: 취업이지.

핑크피기: 인턴도 많이 하고 다들 바쁘게는 사는데, 몸이 힘든 건 싫어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

욕망곰탱이: 자기 기준에서 몸이 힘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표현을 많이해. '내가 굳이 이걸 해야해?' 라는 거지. 시도도 안하고.

핑크피기: '런(run) 친다' 고 그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거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힘들면 그만둬.

도선키즈: 편의점에서 일한지 6개월가량됐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3번이나 바뀌었어. 우리 편의점에 포스기가 2대 있거든.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건데, 자기 몸이 힘든 것은 싫어해.

동국대비와이: '욜로(YOLO)' 라는게 보편적인 정서야. 예전에는 그래도 십수년 열심히 일하면 가족 부양이나 자산 증식 등 일종의 성과가 예상이 됐잖아? 지금은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일거 같은 생각이 커. 아르바이트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가령 힙합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해서 그거 살만큼 딱 일하는거야.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 여행비 마련 위해서 한다던지. 좋게 말해서는 '안분지족' 같아.

욕망곰탱이: 소비심리도 다르다고 봐. 1천만원을 모으면, 아마 선배들은 이걸 투자하거나 저축할거야. 우리는 아예 뭘 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경우가 많아서 모으면 쓰는거지. 그래도 나는 '남들 쓸 때 아끼자, 그래야 한발 더 나갈 수 있다' 는 생각은 있어.

Q MZ 중에 불자들은 좀 다른가?

핑크피기: 그래도 사람간의 인연의 소중함은 알아. 얕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는 생각이지. 그런면에서 불교동아리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결국 모든게 사람 간의 인연이잖아?

Q 불교계에서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이나 뉴미디어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잖아? 찾아본 적 있니?

핑크피기: 연희율동단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율동단원으로 참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상을 찾게 됐어. 문제는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하고, 현타가 오더라고.

욕망곰탱이: 대불련도 유튜브가 있는데 마찬가지야...오히려 나이 많으신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나 기도문 영상은 조회수가 잘나오는데.

Q 틱톡이나 쇼츠 같은 숏폼 플랫폼을 많이 하잖아? 인스타그램 같은걸 활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핑크피기: 이른바 '물타기' 가 되어야 해. 핫한 이슈로 끌어올려야 확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

동국대비와이: 개인적으로 '스님도 고기먹나?' 같은 다소 민망한 주제로 '어그로' 를 끄는게 중요한 듯해. 모르면 아예 오해하잖아. 불교를 접해보지 않은 이들은 불교 믿으면 연애하면 안되는 줄 알아. 스님들은 풀만 먹고 재산 없고 말이지.

욕망곰탱이: 불자셀럽들이 스님들과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미디어 노출이 많은 MZ에게는 셀럽들이 친불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와 닿는 것 같아. 총무원장 스님이 유명한 유튜버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던지, 어른 스님들이 셀럽들과 차담한다던지 이런게 일종의 불교이미지를 좀 더 젊게 바꿔갈 것 같아.

핑크피기: MZ한테는 템플스테이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인스타 사진찍기 좋은 사찰 명소 같은 걸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서 알리는거지. 물론 사진만 찍으려고 사찰에 가는건 문제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사찰에 오면 그중에 불자도 되고 하는거 아닐까.

Q 최근 MZ는 타투도 많이 하잖아?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바뀐거 같아. 나폴리 김민재 선수의 경우 가슴에는 카르페디엠, 등에는 예수님 문신을 아주 크게 했거든. 기독교에서는 신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타투가 활용되는데, 불교에서는 좀 아닌거 같아.

욕망곰탱이: MZ에서는 자기표현의 수단이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 합법화를 외치며 타투스티커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잖아? 그게 MZ 인식을 나타낸 거라고 봐. 다만 불교타투는 예전에 조폭들이 관세음보살 등의 문신을 많이 하면서 마치 타투로 부처님을 새기면 조폭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생긴게 안타까워.

핑크피기: 불자가 아닌데도 연꽃 타투를 한 친구도 있어. 취직 전에 합장하고 명상하는 자세를 타투를 하고 싶어서 도안까지 다 해놨어. 곧 하려고.

Q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 후 첫 행보로 MZ와의 간담회를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불교계에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

욕망곰탱이: 색달랐어. 지위가 높은 스님이 우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자체가 놀라웠어.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

동국대비와이: 현실적이긴 한데 결국엔 돈을 써야 해. 알바들도 많이 하는데, 사찰서 알바를 해도 시급이 높다면 아마무교여도 서로 하려고 할거야. 냉정하지만 MZ는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에 민감해 불교코딩대회 같이 스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

Q 오늘 모인 이들이 불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MZ가 말하는 이른바 '힙(Hip)'한 불교는 무엇이 있을까?

욕망곰탱이: '달마야 놀자' 영화보면 '반야심경 리믹스' 노래가 나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신박하거든. 외부에서 보면 힙합과 국악의 합주도 굉장히 호평받고 있어. 사찰에서도 가끔은 리믹스로 불교음악 같은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계종 포교원에서 최근 부처님 일대기를 레고 스톱무비로 제작했어.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봐.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도선키즈: 도선사에 매주 가는데, 한번은 법문을 사찰 전체 스피커로 틀어놨어. '주지스님이 래퍼였으면 쇼미더머니 1등 했겠다' 생각했어. 스님들이 재미있게 염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핑크피기: 최근에 비구니 스님들과 친해져서 스님과 함께 한강걷기를 하고 있어. '물멍' 이라고 해서 한강보면서 힐링을 하거든. 스님이랑 하니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 그런데 스님들은 보통 아침 일찍 포행을 하시잖아? 러닝크루, 물멍크루 등을 조직해서 스님과 함께 한강걷기나 물멍을 하면 좋을거 같아.

동국대비와이: 아는 형이 이른바 동뽕에 취해서 '동국대' 라는 힙합곡을 만들었어. 곡안에 부처님에 대한 리스펙이 담겨있지. 반야심경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고. 이런 곡들이 좀 더 나오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욕망곰탱이: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원해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청년불자들 많이 생각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MZ로 느끼는건 사찰에 청년불자들이 오더라도 어리니까 이것저것 잡일 시키지 말고,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해줬으면 좋겠어. 사찰에서 작은 경험 하나가 나중에 씨앗이 되고 커지니까 말이야.

